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국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0. 1. 26 ~ 2020. 2. 15 제219호



▶ 파키스탄에서 만난 할아버지와 손자(제공: WMM)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낮을 든 소년과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할아버지. 한나절 풀을 베고도 아직 베야할 풀들이 남아 있다. 해마다 이곳에서 자라난 풀들을 할아버지는 얼마나 많이 베었을까? 이제는 불쑥 커버린 손자가 할아버지 대신 낫을 잡는다. 그리고 이곳에서 할아버지가 평생 느꼈을 수고와 보람

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한 세대가 지나면 반드시 다음세대가 온다. 그리고 앞선 세대가 걸었던 그 길을 다음세대도 걷는다. 우리는 다음세대에게 어떤 길을 남겨 주어야 할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예녹의 3대손 노아. 그도 예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고조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생생하게 지켜봤기 때문이었을까? 홍수 심판을 받았을 만큼 죄된 세상 한복판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오늘 우리도 다음세대에게 그런 길을 남겨 주어야 하지 않을까? [GNPNEWS]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창세기 6:9)

다음 호는 2월 16일자로 발행됩니다

인도 뚜마라다에서 드러난 복음의 능력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의 시골 마을 뚜마라다. 바이작 공항에 내려, 5시간 정도 버스를 갈아타며 뚜마라다에 도착했다. 이번 복음부흥회는 교회 건물 안에서 모이지 않고, 텐트 쳐 놓고 의자 깔아 놓는 야외집회로 진행됐다. 공개된 장소였기에 시간준수에 대해 광고는 해도 늦었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는 환경이었다. 메시지가 시작된 지 30분, 한 시간이 지나서 오는 사람들, 인디언 타임이 이어져 늦게 오신 분들은 메시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덕분에 수없이 앞에 나는 내용을 요약, 반복하는 일들이 매시간마다 발생했다. 첫 집회를 마치고 인도 현지와 한국의 기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그 시점부터였을까. 회중들의 집중도와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다. 눈빛들이 초롱초롱해지고 말씀에 목마름들을 보았다.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심이 느껴졌다.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들은 불편한 잠자리와 모기 때, 불편한 화장실과 음식을 잘 견뎠다. 손으로 밥을 처음 먹으면서도 마지막 날까지 웃음과 믿음의 싸움을 놓치지 않았다. 둘째 날 저녁집회와 마지막 날 오전집회는 잊을 수가 없다. 내 마음 안에 기도는 “승리하게 해주세요”였다. 진리를 듣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음에도 여전히 죄와 어둠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

는 우리 영혼들이 자유케 되는 승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매시간을 보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 기대하지 못했던 교우들과 목회자들의 반응이 뜨겁게 일어났다. 참된 회개를 위해,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며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돌이킴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만 생명으로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으로 뜨겁게 눈물과 통성으로 기도했다. 여전히 답답하고 변하지 않은 것 같은 현지 목회자들의 기도제목과 태도에 대한 아쉬움도 남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고백이 올라왔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GNPNEWS] 인도=크리스토퍼 장



▶ 인도에서 열린 복음부흥회(제공: 크리스토퍼 장)



마음의 눈을 밝히사 (3)

두려움이 삶을 어렵게 합니까?

복음은 확실한 사실이고, 완전한 진리입니다. 그 복음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내면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노예근성에서 비롯됩니다. 노예는 주인에게서 오는 당근과 채찍, 이 두 가지로 삶을 조정당하며 살아갑니다. 말을 안 들으면 채찍에 맞지만, 비참한 노예생활에도 한 번씩 주어지는 달콤한 당근이 있기에 노예생활을 벗어나려고 하

지 않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그 땅의 화려하고 음란한 문화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습니다. 눈요깃거리도 있었습니다. 체질화된 애굽 생활도 꽤 살 만합니다. 이 애굽이 오늘날의 세상을 예표한다고 본다면 똑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저 이 땅에서 잠깐 하루살이처럼 살기에는 세상도 지낼 만합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하면 노예근성 속

에 있는 '두려움'이 실체를 드러냅니다. 채찍에 당할까 봐 두려움, 그나마 세상에서 얻어먹고 살던 당근을 빼앗길 것을 염려하는 이 '두려움'은 죄의 노예로 태어난 우리에게 평생의 숙제입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 무덤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부끄러운 출생, 지울 수 없는 과오. 잊었다가도 기회만 되면 내 영혼을 갈고리로 꿰

어 질질 끌고 다니는 이 두려움의 죄책감에서 자유합니까? 두 번째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누가 날 책임져 주지?' 그리스도인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 받은 엄청난 구원을 보장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당장 괴로운 것을 싫어합니다. 복음은 좋는데 복음에 따르는 대가는 싫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 잘 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이 노



예의 삶에서 구원해주셨습니다.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2017, 규정) 김용의>

*** 복음의소리 316전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으십니까? 신앙생활과 복음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세요.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복음기도총서1
내가 읽다
들어주는
전도편지
100
“죽으면 모든 게 끝일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이 정도 죄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나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
값: 23,000원 (별책부록 포함)
*별책부록의 전도편지 100장을 한 장씩
들어서 언제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야진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복음의소리 도서 출판
복음과기도미디어

美 네브래스카주 ‘주 전체 기도의 날’ 선언... 낙태 종식 위해



▶ 미국 네브래스카주 지사가 ‘주 전체 기도의 날’을 선언하는 모습(출처: lifesitenews.com 캡처)

미국 네브래스카주 지사 피트 티켓이 낙태 종식을 위해 1월 22일을 ‘주 전체 기도의 날’로 선언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보도했다.

낙태 권리 옹호자들이 1973년 ‘로·웨이드(Roe v. Wade) 대법원 판결’로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판결을 기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트 주지사는 “2020

년 1월 22일을 네브래스카주에서 주 전체 기도의 날로 선언한다.”며 “나는 이로써 낙태 종식을 위해 개인적으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로·웨이드 판결’ 이후로 5000만 명 이상의 태아들이 낙태로 인해 죽었다고 지적하면서 “네브래스카주 법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네브래스카주 사람들과 의회 의원들의 의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낙태 반대 가치관을 알리기 위해 임신 위기 센터에서 제공하는 예비 부모의 무료 케어부터 매년 주 전체에서 열리는 철야 기도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네브래스카주에서 낙태 반대 의원들이 해체 낙태와 일반 낙태 금지 법안을 제출한 같은 날 티켓 주지사는 선언문에 서명했으며, 이어 ‘생명을 위한 행진(Walk for Life)’의 연간 계획이 발표됐다고 오마하 월드 헤럴드가 보도했다.

미시간주 시민들 또한 해체 낙태 금지를 모색하고 있으며, 지난달엔 이에 대한 37만 9418건의 청원서를 주 의사당에 전달했다.

한편, 최근 몇몇 주는 1973년 ‘로·웨이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방 낙태권을 인정하고 주 형법에서 낙태를 배제해 논란이 많은 뉴욕의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과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GNPNEWS]

스웨덴 고등학생, “한국 동성애 합법화 힘써 막아달라”

스웨덴의 급진적 성교육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개방적 성문화가 보편화되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동성애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한국사회도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스웨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국 학생이 지적했다.

‘2020 국제 생명주의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포럼’에서 주다운(고2) 학생은 스웨덴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피임기술을 배우며 12살부터는 피임기구, 피임약, 임신테스트, 성병 테스트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쉽게 콘돔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성교육을 전 아동에게 의무교육화 시켰으며 이미 1897년 성교육이 실시됐다. 이로써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 성을 자유롭게 표현해야 한다는 정서가 보편화되어 지나치게

개방된 성문화로 이어져 남학생의 약 54%, 여학생의 64%가 중학교 시절 이미 성경험을 했다고 조사됐다. 주다운 학생은 “어른들은 이러한 현실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이며, 부모는 고등학생 딸의 남자 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밤에 딸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화 때문에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가정보다 짝보(동거)라는 제도를 통해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러한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소중한 울타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난다. 이에 주다운 학생은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에 대한 개방적 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학교 내 동성애 분위기도 심각한 상태다.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대



▶ 스웨덴에서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인 주다운 학생 (출처: penews.co.kr 캡처)

신 부모1, 부모2로 기록하며, 설문 조사의 성별 기재 칸에도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미 학교 내에 제3의 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따로 탈의실을 마련해 두었으며, 화장실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두 성 간의 구별이 많이 허물어진 상태다.

이에 주다운 학생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 합법화의 위험성”이라며 “만약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한국사회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저와 같은 젊은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양성 의식과 건강한 학교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 한국 동성애 합법화를 힘써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GNPNEWS]

GPM 복음과기도미디어 동역간사 모집

복음기도신문을 제작하는 복음과기도미디어(Gospel&Prayer Media)가 2020년 동역간사를 모집한다. 복음학교를 수료하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물든 미디어

영역에서 진리의 빛을 들고 어둠과 싸우며 유일한 소망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미디어 사역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훈련과정은 1년간 합숙으로 진행되며 원서접수는 2월 15일까지. 문의 ☎ 070-5014-0406~8, 010-6326-4641, 이메일 gnmedia@gnmedia.org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1.12 ~ 1.18)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푸에르토리코, 강진의 두려움 기도로 극복

지난 7일 진도 6.4의 강진이 발생한 푸에르토리코의 주민들이 폰 세에 모여 지진의 여파로 피해와 공포에 있지만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다고 미국 CBS가 13일 보도했다. 이들은 믿음이 충만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확인하며, 전능한 창조자를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뿐 아니라 영원한 죄의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십자가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북한, 19년째 박해국 1위... 중국도 급상승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0년 박해국가 순위에서 북한이 19년째 1위를 기록했으며 2018년 43위를 기록했던 중국의 순위가 올해 23위로 급상승했다. 중국의 경우, 성도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생체인식 기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북한과 중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의인은 고난이 많아도 여호와께서 건지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뿐입니다. 멸망의 길에 서있는 북한과 중국이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전국 교수 6094명, “문재인 정권은 유사 전체주의” 시국선언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 6094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을 ‘유사 전체주의’로 규정하는 제2차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거짓과 기만과 위선의 정권’이라며 헌정법제, 경제정책, 안보국방, 교육사회, 탈원전 등 거짓과 기만에 근거한 폭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현 정권의 거짓과 속임수를 드러낼 뿐 아니라 교회들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북아일랜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13일부터 발효

북아일랜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13일부터 발효돼 이미 결혼한 이들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 대해 크리스천 인스티튜트는 동성결혼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막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북아일랜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동성애가 분명한 죄인 것에 대해 죽으면 죽으리라의 심정으로 교회들이 선포하여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0년 1월 27일 ~ 2월 15일

1월 27일 ~ 2월 1일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최**)010-4145-3317, 1.28~31(14~16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위**)010-4510-1070, 1.30(0~24시) ▶울산 울주 / 우정교회(박**)010-8308-4628, 1.30(10~15시)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김**)010-4011-6719, 1.31(09시)~2.1(12시) ▶대구 달성 / 하늘숲교회(정**)010-9557-5154, 1.31(10시)~2.1(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그외 9교회 진행중.

2월 3일 ~ 2월 8일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독일 루트비히스하펜 / 만나교회(경**)0176-4731-0659, 2.4(0~24시) ▶경기 수원 / 진흥교회(남**)010-8268-6879, 2.6(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2.7(12시)~8(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2.7(20~22시)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2.7(20~22시),8(11~13시) ▶경기 고양 / 그루터기교회(신**)010-4944-3735, 그외 7교회 진행중.

2월 10일 ~ 2월 15일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2.11(11~16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2.12(09~17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2.14(0~24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2.14(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구김포전원)교회(강**)010-4128-0448, 2.15(08~20시) ▶경북 의성 / 삼성초대교회(김**)010-8528-3217, 그외 8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기획 | 이슬람 세계가 열린다 (2)

19C, 선교사 첫 입국한 오만... 무슬림 개종자 200명 추정

오늘의 오만을 있게 한 종합경제 정책 '오만 2020'의 설계자 카부스 빈 사이드 알사이드 국왕의 서거로 오만의 미래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의 후임에는 사촌인 하이삼 빈 타리크 알사이드 문화유적부 장관이 지명됐다. 원유 매장량은 비교적 소규모이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마주하는 전략적 위치로 인해 오만은 국제 석유시장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져왔다. 본지 이슬람 특집은 그동안 오만에서 선왕(宣王)으로 여겨져 온 카부스 국왕 서거 이후, 오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선교 상황을 조명해본다. <편집자>

지난해 12월 초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행 비행기에서 인도인 비즈니스맨 K를 만났다. 전 세계 십여 개 나라와 거래하고 있는 회사의 업무차 오만으로 출장가고 있다는 그는 중동의 변화를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상세하게 소개했다. 인도에서 MBA과정을 마치고 중동국가를 나름대로 상세하게 꿰고 있는 듯한 그는 중동의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지난 수십 년간 중동 산유국이 누려온 오일 파워가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세일혁명 이후, 크게 퇴조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현상 가운데 하나다. 그런 중동 국가들의 변화상을 K는 온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듯 했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가 발표한 사우디의 여행 비자는 이 같은 변화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우디의 목표는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 같이 비즈니스 중심도시를 갖는 것이라고 K는 말했다. 실제로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6년 '비전 2030'이라는 사우디 경제다각화 전략을 통해 2020년 관광객 1500만, 2030년 3000만 명을 목표로 경제다각화 엔터테인먼트 사업육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7대 사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K팝의 아이콘으로 부각한 BTS의 사우디 공연은 중동국가는 물론 전 세계에 사우디의 변화를 실감케하는 일대 사건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 모두 오일시장 위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중동국가들이 시도하는 개방화 물결의 한 현상이다. 한편, 아라비아 반도에서 석유매장량이 가장 적은 오만 역시 이 같은 중동국가가 갖는 위기의 본질은 동일하다.

유가 위기 국면에서 문을 열고 있는 중동

예상치 않은 중동 브리핑을 비행 중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18년에 새롭게 개장한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 신공항에 도착했다. 초현대식으로 세워진 공항의 외국인 여권심사대는 내국인 심사대에 비해 비교적 한산했다. 특히 이곳에서 30일간 무비자 입국대상국인 한국여권으로 신속하게 입국하며, 한국의 비자 파워의 위상을 실감했다.

그러나 필자의 관심은 '이슬람 국가인 오만에서 복음전파가 가능할까?'였다. 무슬림 국가로 국민들의 기독교 개종이 금지돼 있는 이 땅에 과연 복음전파의 흔적을 찾을지 살펴보았다. 오만에는 한국과 비슷한 시기인 1891년에 입국한 선교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오만에서 만난 B선교사는 "이슬람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무엘 즈웨머와 토마스 발피 선교사가 이슬람권 선교의 길을 연 이후, 사무엘 즈웨머의 조카 피터 즈웨머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7개의 혀"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언어 구사가 자유로웠던 토마스 발피 선교사는 1891년 오만에 입국한 이후, 오만 최초의 선교사로



▶ 해안에 위치한 수도 무스카트 풍경(©복음기도신문)

선명하게 그의 족적을 남겨놓았다.

토마스 발피 선교사, 1891년에 입국

발피(1825~1891) 선교사는 25살에 인도 아그라에 파송돼 대학을 설립하고 지금의 파키스탄 라호르를 중심으로 1859년부터 1887년 사이에 사역했다. 도중에 건강 악화로 영국으로 귀국했다가 1870년부터 7년간 라호르와 카시미르의 넓은 지역을 섬기며, 무슬림권 사역의 개척자로 순종했다. 그러다

건강 악화로 1887년에 은퇴했다가 건강이 조금 회복되자 1891년 66세의 나이에 다시 아라비아 반도 선교의 꿈을 안고 무스카트에 입국했다. 그리고 무스카트에서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순종한 그는 오만 최초의 선교사라는 기록을 남기고 오만 땅에 묻혔다. 현재 무스카트 해안가의 사알리 군사묘지에 있는 그의 비석에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

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이 영어와 아랍어로 새겨져 있다.

그 사이, 이름 모를 수많은 선교사들이 문을 두드리며, 오만의 영혼들에게 다가갔을 것이다. 그런 결과를 알 수 있는 자료를 B선교사가 제시했다. 그는 오만을 포함 아라비아 반도에서 기독교 개종자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1960년부터 2010년 사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무슬림을 의미하는 MBB(Muslim Based Believer)는 사우디아라비아 6만 명, 바레인 1650명, 예멘 400명, 쿠웨이트 350명, UAE와 오만 각 2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지금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필자가 도착하기 직전에도 한 유명 인사의 장례식이 기독교식으로 치러졌으며,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쌓여 오만을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기도했다. [GNPNEWS] 중동=C.K.

오만 여성의 높은 향학열, 대학생 80~90%가 여학생

오만은 동방박사의 아기 예수 선물이었던 유향 산지로, 또 아라비아 안나이트의 주인공 신밧드가 태어난 곳으로 유명하다. 최근 서거한 술탄 카부스 전 국왕은 이슬람 국가 가운데 이례적으로 평화와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자문역으로 한때 노벨평화상 후보로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카부스 국왕은 오만을 중동 및 세계를 위한 개발과 정의의 모델로 만들고, 국제적 위기에 개입해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만은 중동의 스위스로 불리며, 갈등 중재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카부스 국왕은 또 5개년 개발

계획 등으로 석유, 가스, 관광자원 등을 개발해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고 했다.

B선교사는 "카부스 국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압도적이다. 성년이 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주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복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국가의 복지제도로 인해 국민들 가운데 실업률은 상당히 높다. 하지만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만의 실업률은 3% 수준이다. 자유주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실업과 이곳의 실

업 측정기준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국가의 넉넉한 복지혜택 외에도 자신이 직접 생산 현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기보다는 외국인 사업자의 파트너로 등록만 하는 스폰서십만 갖고 있어도 수익의 몇 십%를 할당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산업, 대부분 이주민 노동자로 구성

이에 따라 남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은 군인이나 경찰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육체노동은 인도 및 파키스탄 등에서 일하러 온 외국인 이주민이 전체 국민의 30%를 차지하며 이들이 감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이주민들로, 이들이 없으면 오만의 경제활동이 멈출 정도다. 무스카트의 한 찻집을 찾았을 때의 경험이다. 손님들은 모두 차량에 타고 있고 차 주문을 하고 차에서 마시는 독특한 찻집분위기였다. 이때 가게와 차량 사이를 오가며 주문과 배달을 감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주민 노동자였다. 이런 환경은 직업에 대한 귀천인식을 갖게 한 것은 물론, 직업을 갖고자 하는 열망도

떨어뜨려 오만 남성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도 갖기 어렵게 했다고 한다.

C선교사에 따르면, 무스카트에 소재한 마잔대학교의 전교생 중 80~90%가 여학생이다. 문제는 이들 여성이 졸업 이후에도 취업할 곳이 많지 않다. 이슬람 사회 특유의 여성에 대한 무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 남성은 이런 상황에서 급급한 오만인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있다.

한편, 오만의 원주민은 100% 아랍인이며, 그중 75%는 이바디 무슬림이다. 이바디파는 지도자 선출에서 혈연과 세습을 배제하며, 대신 덕망과 지도력을 갖춘 사람은 누구든 이맘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바디파는 전 세계 무슬림의 1%에도 못 미친다. 타종교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이지만, 자국민의 개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만의 면적은 30만㎢로 한국 3배 정도의 국토에 인구는 461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5600달러이며, 이동통신 가입자는 694만 명으로 국민 1인당 1.5개를 보유하고 있다. [GNPNEWS]



▶ 과일 상점에서 일하는 이주민 노동자들(©복음기도신문)

기획 | 창조 이야기 (28)

기압이 높았던 홍수 전 동물은 거대했다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문명을 완전히 다시 세워야 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석기를 만들어야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땅을 파서 철을 찾은 다음 녹여서 철기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제작에 3주나 걸리는 철도끼를 만들다 굽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50파운드(약 22.7kg)나 하는 철기구들을 들고 다니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석기를 만드는 게 더 빨랐을 것이다. 맘모스나 버팔로를 바짝 쫓아가, 빨리 석기를 만들어 잡아서 도살한 다음, 도구들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났지 않았을까.

오늘날 우리는 이런 석기를 발견하면 이렇게 반응한다. “와, 이 화살촉이 완벽한 모양으로 균형이 잡혀 있네. 이 사람들 똑똑했구나. 발전된 문명이었나 보다.” 혹은 약간 조잡해 보이고 부드럽게 다듬어지지 않은 다른 화살촉을 발견하면 “이걸 만든 시대의 사람들은 그다지 똑똑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한다. 실제 그랬을까. 이런 가

정은 어떨까? 화살촉이 조잡해 보이는 것은 도망가는 맘모스를 잡기 위해 다급했던 사람이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유물은 그들의 지능보다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을 들였느냐에 관한 흔적일 수 있다.

홍수 전에는 사람들만 더 오래 살았던 게 아니라 동물들도 오래 살았다. 그만큼 더 크게 자라났다. 18피트(약 5.5m) 키의 빨 없는, 아주 큰 코뿔소에 대해, 사람들은 선사시대 동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니다. 100년 전까지 ‘선사시대’라는 단어는 사전에도 없었다. 1766년 사전에는 ‘선사시대’라는 단어가 없다. 1860년 사전에도, 1892년 사전에도 없다. 홍수 전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선사시대라는 개념은 없었다.

홍수가 있기 전에는 물의 장막이 기압을 높였기 때문에 지구 환경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곤충도 훨씬 크게 자라났다. 곤충들은 사용 가능한 산소량과 크기가 비례한다. 표면적과 부피의 비율에 따라 산소가 풍부한 물에 사는 곤충들은 1000배 더 무거워진다. 50인치(약 1.27m)짜리 날개를 가진 잠자리 같은 화석이 발견되었다. 요즘은 3~4인치(약 7.6~10cm) 정도만 자라지만, 홍수 전에는 거대했다. 18인치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페니 석탄 계곡에서 1947년 한 지질학자에 의해 발견된 거대한 암모나이트 화석(출처: bbcga.com 캡처)

(약 45cm)나 되는 거대한 바퀴벌레의 화석과 8.5피트(약 2.6m)짜리의 거대한 지네 화석도 발견되었다. 이런 화석은 더 있다. 2피트(약 60cm)짜리 메뚜기 화석, 다리 사이의 길이가 3피트(약 90cm)나 되는 독거미 화석, 60피트(약 18.3m)의 부들화석, 텍사스에서는 9피트(약 2.75m)키의 당나귀도 발견되었다. 이것들이 수백만 년 되었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홍수 전에 살았던 것일 뿐이다.

기압이 높아지면 더 많은 기체가 물에 녹아 들어간다. 아가미로 물 안에서 호흡하는 물고기도 더 컸을 것이다. 오늘날 상어가 약 1인

치(약 2.54cm) 길이의 이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어는 아마 15피트(약 4.5m) 정도의 길이가 될 것이다. 그러기에 발견된 상어 화석의 이빨은 상어가 이 지구에서 80피트(약 25m)의 길이로 자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우 박사는 고압 산소실에서 초파리를 키웠는데 보통보다 10배 오래 살았다. 단지 기압만 높였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에텐동산은 기압도 높고 햇빛도 걸러지고 자기장도 더 강했을 것이다. 에텐동산 이후로 적어도 이 세 가지, 아니 더 많이 잃어버렸을 것이다. 안데스산 해발 2마일에서 발견

된 굴은 11피트(약 3.5m)의 길이에 600파운드(약 270kg)의 무게였다. 에베레스트산에서는 화석화된 조개를 발견했다. 이 조개들은 화석화 되었는데도 닫혀 있었다. 에베레스트산은 해변까지는 약 450마일(약 700km) 떨어져 있고 조개는 죽을 때 껍데기가 벌어진다. 어떻게 화석화된 닫힌 조개를 에베레스트산 위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까? 홍수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홍수가 에베레스트산 위까지는 덮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는 에베레스트산은 아직 없었을 것이다. 시편 104편은 홍수 마지막에 산이 올랐다고 말한다. 홍수가 끝나갈 때 산이 형성되면서, 지표가 깨어져 열리면서 조각난 것들이 오르락내리락했던 결과일 것이다.

파충류는 절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만일 파충류를 에텐동산에 놓고 900살까지 살게 놔두면 어떻게 될까? 아주 커다란 도마뱀이 될 것이다. 공룡은 홍수가 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던 커다란 도마뱀이다. 지금 시대에 애완동물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작은 잭슨 카멜레온이 15톤까지 자란다면 어떻게 생겼을까? 일종의 트라이세로 톱 같을 것이다. 공룡은 ‘끔찍한 도마뱀’이다. 공룡은 인간 역사상 항상 같이 살아왔으며 이름이 달랐던 것뿐이다.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친구들과 천국에서 만날 황홀한 꿈을 꾸며 학교에 간다

설레는 마음으로 T국을 밟았지만 부딪히게 된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현지어 공부와 한 달밖에 주어지지 않은 대학입학시험을 위한 공부, 심각한 관계의 문제, 사랑하는 부모님이 많이 아프다는 소식과 영적인 공격이 너무도 많았다. 하루도 버티기가 어려워 내일이 온다는 것이 두렵기까지 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장소가 마땅히 없어 숨죽여 탄식하며 눈물만 흘리기도 했다.

선하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통하여 내게 역사하셨다. 아침 묵상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주님과 교제했다. 기도중 주님이 내게 질문하셨다. “선교사의 삶이 매일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계속 살아갈 수 있겠니?” “아멘” 했다. 주님 따르는 이 길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부르심 받은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함을 고백했다.

불가능해 보였던 입학시험에 합



▶ 강의를 듣고 있는 무슬림 대학생들의 모습.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출처: insancendekia.org)

격했다. 부르심을 따라 들어간 대학에서 현지어를 배우게 됐다. 현지어 받은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예멘 등 16개국에서 온 23명의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과 현지어로 이야기하며 많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을 열고 친해진 사람들에게 복음

을 나눌 수 있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복음을 나누고, 현지어가 아직 부족해 은행 일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를 도와주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눴다. 현지어 수업 중에 이런 주제가 나올 때가 있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돈인가 행복인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후에 그 수업을

진행하신 선생님과 같이 식사하며, 행복을 주제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한 삶을 나눌 수 있었다.

또 소음 때문에 집에서 볼 수 없어 하모니카를 들고 공원에 갔다. 하모니카로 찬양을 연주하며 홀로 마음 드려 예배드리고 있을 때, 어떤 분들이 오셔서 말했다. 방금 전 연주를 듣고 감격했고 울었다고. 그렇게 찬양을 듣고 오는 사람들, 옆에 앉아 쉬어가는 분들과 교제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 교제를 나누다가 마음을 여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방금 당신이 들은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계속 교제를 하고 있다.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 우리반 친구들과 선생님, 이 나라에서 알게 된 영혼들을 위해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

현지어 수업 중에 과일 ‘감’이 천국의 과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 수업을 진행하던 무슬림 선생님이 대다수 무슬림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애들아 우리 모두 천국에 가자. 누가 천국에 갈지는 알라만이 아시지만...”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들이 이대로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는다면 지옥에 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간절히 소망한다. 그 날에 이들과 함께 천국에서 만날 것을. 그 황홀한 꿈을 꾸며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에 간다. [GNPNEWS]

T국=신호세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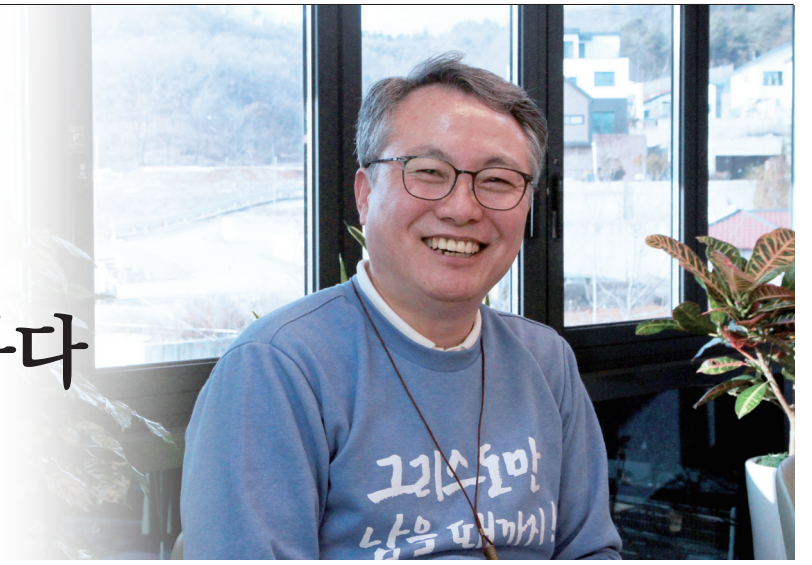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5014-0406~8, 010-6326-4641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주님만 따르는 교회로 순종하다

순종의 걸음을 걷는 이선세 목사(하나님보시기에참좋았더라 교회)



©복음기도신문

하나님보시기에참좋았더라 교회를 찾았을 때는 마침 점심시간이었다. 이선세 목사를 만나 교회 1층에 있는 식당에 들어섰다.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브원형학교(토브는 '선하다, 좋다'는 뜻의 히브리어)의 청소년 10여 명이 일제히 일어나 목사님께 인사를 했다. 이미 식판에 배식을 받은 학생들은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었다. 목사님이 먼저 수저 들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이 목사는 "나는 밥이 아직 없으니 먼저 드세요."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학생들은 기도하고 식사를 시작했다. 매우 인상적이었다. 공교육 현장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교육현장이 존재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순종하고 있는 이 목사의 목회 이야기를 들어봤다.

요. 다른 공동체 지체들 50~60명이 우리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이들도 많이 왔죠. 교회 앞에 우리 아이들이 타고 놀던 자

7년 즈음 지났을 때 마음에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목사들에게 마음이 공허한 건 위기죠. 예수님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목회 자체

이건 뭐냐고 물어도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만 답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설교도, 훈련도, 심방도."

-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어느 날 노회에서 하는 장로 고시, 목사 후보자 고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인터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목사가 될 사람들과 장로가 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 이해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대부분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부족하니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이 뭐가 채워주시면 우리가 완전하다. 하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할 때만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제서야 왜 힘이 들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그동안 부족한 내가 무엇인가 채워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는 한, 나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선한 일을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일을 했기 때문이었죠. 주님이 채워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인간을 이해하니 보이는 것이 많아졌어요."



▶ 주일날 선포된 설교 메시지에 대한 은혜와 자신의 삶에서 적용된 내용을 교우들 간에 나누고 있다.(제공: 이선세 목사)

- 학생들이 예의가 무척 바르군요. 어떻게 교육을 하시나요?

"다른 건 없습니다.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것 외에 달리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떠러진 주님으로부터 마음을 받는다면 당연히 공동체를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려고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서 인사하고, 식사시간에 수저를 놓는다든지, 음식 나르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기쁨이 우리 몸에 배어있으면 언제든지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동차들이 있었는데, 3~4살 되는 우리 아이들이 일제히 양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놀랐어요. 비록 아이들의 얼굴 표정은 타고 싶은 마음과 서운함으로 가득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였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뻐했어요. 보통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지기 어려워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3살이 되면 부모와

에 보람도 없이 7년이 흘렀다면 앞으로의 시간도 아무 의미 없이 빨리 지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목상하는 중, 주님이 이런 시간의 흐름을 맞는 저에게 '징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마음 다해 섬겼는데 징계라고 하니 기운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이

공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다

- 위기를 맞으셨네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때 내가 아는 주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는 믿음이 무엇인지 갈증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하게 됐어요. 집에서 개척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며 교회에 대해 공부를 했어요. 저에

“
인간이 전적 타락을 인정할 때 비로소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



▶ 토브원형학교 수업 시간(제공: 이선세 목사)

다음세대에게 그리스도를 심다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5~6명의 어린이들이 이 목사를 찾아왔다. 이 목사는 미리 준비해둔 사망 바구니를 들고 와서 나이 순서대로 사망을 나눠주었다. 아이들은 인사를 하고 이 목사 및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 돌아갔다.

"처음 온 아이들은 사망을 확 잡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가르쳐요. 형, 누나부터 받는 것을 배우면 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배우게 되죠. 하루는 3살짜리 아이가 얼굴이 시무룩해서 왔어요. 장난감을 잃어버린 것이죠. 속상할 때 어떻게 해? 물었더니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배워가



▶ 교인들과 서울역 전도(제공: 이선세 목사)

떨어지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3살은 5살이 보살피고, 5살은 7살이 보살피도록 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배워가게 하죠."

- 그리스도의 몸을 배워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시작됐나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큰 교회 부교역자로 있었어요. 사역한지

있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그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나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것 같았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겐 교회 성장은 별 의미가 없었어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니 살아보려고 개척한 것이었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개척하고 7개월 정도는 주일에배만 드렸어요. 그 외에는 말씀해 주신 게 없었던거예요. 그때 주님이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인간 이해, 복음 이해, 교회 이해."

머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몸이 모든 것을 생산해 내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연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죠. 그 안에서 계획대로 진행하며 안정감을 느끼죠. 중요한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경험하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믿음으로 사는 복음 (2)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놀라운 고백을 한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한 온 만물과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창조주 되신 주님을 발견하고 노래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 19:1) 온 천하 만물이 각자 세워진 자리에 있다. 온 행성과 항성들이 질서정연하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그 능력의 다스림 안에서 움직인다. 보이지 않는 완벽한 법칙 아래 움직여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와 능력이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시 19:2) 하나님의 정한 뜻이 자연 만물 안에서 한 치의 오차 없이 그 지어진 목적대로 정확하게 유지되고 운행되며 관리된다. 이 크고 영화로우신 창조주,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이 티끌 같은 우리 인생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신다. 게다가 머리털까지 세신다

니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는가. 내가 맞이할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다 정해주시며 내 인생의 가이드인 진리의 율법을 주셨다. 내가 누구인지, 무슨 짓을 할지, 또 실수할지,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망하지 않고 사는지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아신다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가. 만왕의 왕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이 들 때까지 일일이 지침을 주셨다면 가슴 터질만한 감격 아닌가.

“여호와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시 19:7-9)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법도, 교훈, 도’

라는 여러 표현으로 말하면서 내 일생 가는 길에 내 눈을 밝혀 주시고 내가 봐야 할 것을 바로 보게 해주시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로 걷게 해주시고 내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매일 그 지침으로 해답을 주셨음에 감탄하며 고백한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 19:10) 그는 순종으로 이 진리를 더욱 알게 되었다.

누가 내 인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답을 주겠는가. 영원히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침,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진리.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시 19:14)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면 안심하고 갈 수 있다.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내 안을 살피셔서 목상하



일러스트=노주나

고 생각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당신의 말씀의 진리로 늘 정결하게 되어서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내 감정 따라, 내 좁은 경험 따라 사는 길이 망하는 길이오니 주여,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

한 희망이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고 더욱 주님이면 다라는 사실이다. (2017년 9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1년 52주 연속. 연쇄. 초점집중 기도를 위한 기도정보 모음집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8

복음과 영적전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를 위한 느헤미야52기도정보 Ver.8

복음의 디아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를 위한 느헤미야52기도정보 Ver.8

복음에 반역하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를 위한 느헤미야52기도정보 Ver.8

복음의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를 위한 느헤미야52기도정보 Ver.8

복음과 박해받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를 위한 느헤미야52기도정보 Ver.8

복음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를 위한 느헤미야52기도정보 Ver.8

▶ 1~6권 기도정보집은 특별한 개정이 없는 한 계속 사용

▶ 긴급기도정보 각 권 별책 전 6권

정가 74,000원, 세트가 66,000원 (총 12권)

느헤미야52기도가 저희 부부를 살렸습니다!

“느헤미야52기도 1권 복음의 영광에 대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기도정보를 읽고 기도하다보면 내 옛자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에게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오직 다 이루신 주님만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과 느헤미야52기도가 우리 부부를 살렸습니다” _1국 000선교사 부부

구입문의 Purchase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재정 때문에 안심하는 것, 사탄의 속임수”

면서 저희는 연간계획과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고 싶어서요”

-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예산을 세우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주님만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때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에 맞춰가기보다 예산에 맞춰가게 되죠. 그래서 예산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자. 공급해주는 주님을 믿자고 하면서 선택한 길이 있었어요.”

-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

는지 궁금하네요.

“교인들에게도 필요하면 재정을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부터 한다고요. 1층에 있는 카페를 시작할 때도 30만 원만 졌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감동주신 것은 30만 원뿐이었거든요. 담당 집사님이 감사하게도 믿음으로 순종해 줬어요. 허락된 만큼만 하면 되니까요. 지금은 유지가 될 뿐 아니라 재정이 넘치죠. 모든 면에서 그런 믿음의 원리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재정이 있어야 안심하는 사탄의 속임을 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심하는 건지, 재정이 있어서 안심하는 건지 분명해집니다.” [GNP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 교회 전경. 이곳에서 토브원형학교가 진행되고 있다. (제공: 이선세 목사)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갔다... 순종 이후 허락된 사무실

선교사로 헌신한지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순종의 헛수가 믿음을 살아내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작년 한 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과 이해되지 않고, 불의한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소속 선교회의 본부 사무실을 이전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2018년 다음 말씀으로 이전을 결정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 (신 7:19)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순회선교단의 역사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다. 너희에게서 날 빼 버리면 남을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이를 거야. 너 나만 믿어. 그러면 나의 영광을 보여줄게."



일러스트=고은선

이 말씀을 받고 주님께서 드러내실 영광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2019년 1월 선교사들을 위한 여호수아 말씀기도 때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가리라'(수 1:11)라는 말씀을 받았다. 며칠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 마음에 초조함과 조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누가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건물을 돌아다녀야 안정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 재정, 상황을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씩 올라오게 되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

음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 나의 존재를 보게 하시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계속 신뢰하라! 한동안 장소에 대한 연락이 끊어지고 잠잠한 시간을 보내게 됐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한 동료 선교사로부터 받은 전화가 지금의 새로운 본부 사무실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기대를 걸고 찾았던 곳은 아니었다. 건물은 우리가 사용하기에 적당한 공간이었지만 지불해야 할 재정이 우리가 감당할 곳이 아니었다. 기대감 없이 건물 주인과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 이후, 허락된 이곳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머물 공간이 되게 하셨다.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의 주인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원리를 배우게 하시는 한 해였다. [GNPNEWS]

장흥국

실망, 짜증... 말씀이 마음을 지키게 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순종을 배우다

팀이 발표될 때 마음이 무너졌다. 말쑥꾸러기들이 다 모였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 참여하는 빛의열매 학교 아웃리치였기에, 팀원을 보면서 실망이 컸다. 예상대로 같은 팀 아이들이 장난치고 선생님 말씀을 안 들었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후에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쉽지 않았다. 덥고 습한 날씨에 서로 짜증을 내고 불평했다. 하지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침 묵상말씀을 통해 말씀하셨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져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 캄보디아의 일정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 52기도에 참여하는 것구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힘들어했다.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를 증오하며 싸우게 만드는 것 같았다.

기도하던 중 주님은 '너의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내 땅이라'고 말씀하셨다.(출 3:5) 그때까지 덥고 짜증나고 땀만나서 힘들었지만, 주님은 내가 이 환경에 맞추면 된다는 마음을 주셨다.

다음은 시골 마을을 방문, 전도하는 일정이었다. 옷을 나눠주며 병에 걸린 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육체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나보다 더 부유한 시골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가지고 싶은 욕심에 불평하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다.

또 1000년 된 불교 사원들을 보면서, 나도 내 맘속에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은 없는지 되새겨 보았다.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는 주님을 경험했다. [GNPNEWS]

이건(15)

부흥을 위하여

올해 대북 지원 금액 775만 달러, 한국이 가장 많아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한국과 스위스, 독일 정부가 올해 들어 북한 주민을 돕는 지원 사업을 위한 대북 인도주의 자금으로 약 775만 달러를 지원한 가운데 한국이 가장 많이 지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국제 사회의 인도주의 지원금 현황을 집계하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이번 달 들어 한국이 572만 6914달러, 스위스가 135만 2166달러, 독일이 67만 1741달러, 총 775만 821달러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13일 현재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 '재정확

인서비스(FTS)'의 2020년 지원 관련 상세내역을 결과, 한국 정부는 총 약 573만 달러 중 세계보건기구(WHO)에 400만 달러, 북한 적십자사에 172만 6914달러를 지원했다.

한국, 대북 지원의 29.5%
한편, 지난 2019년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자금 모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아동기금(UNICEF),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등 5곳과 한국, 스위스, 스웨덴, 러시아, 캐나다,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 등 10개국이 대북지

원에 나섰다. 이 중 국가별로 한국이 1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전체 대북 지원의 29.5%를 차지했다. 이어 스위스가 618만 7174달러로 전체 대북 지원의 18.3%를 차지했다. [GNPNEWS]

귀국지시 받은 북 무역주재원 보위요원이 밀착 감시

“면발치에서 보더라도 아는 척 마세요” 요청

지난 연말 갑작스럽게 귀국지시를 받은 중국 주재 북한 무역주재원들과 그 가족들이 북한 보위요원들로부터 밀착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의 중국 단둥의 무역관련 소식통은 이달 24일까지 귀국하라는 지시를 받고 귀국준비에 여념이 없는 북조선 무역주재원들이 북조선 보위요원들로부터 밀착 감시를

받고 있어 귀국 준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귀국을 앞둔 북조선 무역주재원들의 외부활동에 보위당국이 제약을 가하는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면서도 이번엔 통제 정도가 과거 어느 때 보다 더 엄중한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다.

이런 사정으로 중국의 지인들은 북조선 무역대표들에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신

(WeChat)을 이용,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주재원은 늦은 밤에 꺼 놓았던 휴대폰을 켜서 문자를 확인하고 역시 문자로 답신을 보내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단둥의 한 조선족 소식통은 몇 년 동안 교류를 하며 정이 든 북조선 무역대표가 이번에 아주 귀국을 한다기에 내 옷 중에서 새것이나 다름없는 옷가지들을 좀 챙겨주려고 집에 잠깐 들르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밤늦게 문자가 왔는데 '말씀은 고맙지만 내가 짐으로 찾아갈 수가 없는 사정이라서 미안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또 내가 어찌면 내달(2월) 중에 평양에 갈 가능성이 있으니 그때 평양에서 만나자고 했더니 그것도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만나는 것은 물론 혹시 면발치에서 자기를 보더라도 아는 척하지 말아 달라며 간곡한 부탁을 해왔다고 전했다. [GNPNEWS]

복음의 능력

바로 네가 죄인이다!

타락한 인간은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아닌가?”라며 자기 죄를 합리화한다. 죄에 대한 이런 식의 반응이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모두가 다 죄인이라면,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이 널리 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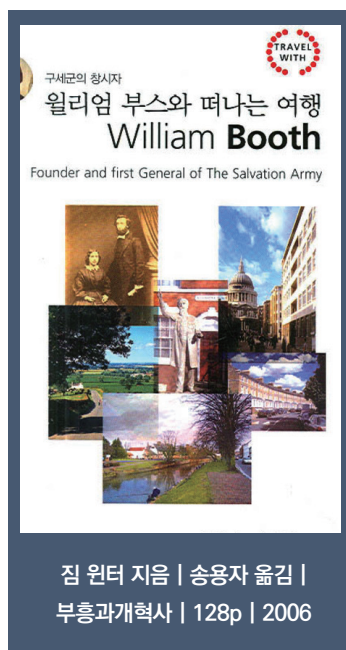
하나님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의 보편적 부패의 교리로 도피하여 거기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성경 도처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 “바로 네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음성들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음성이다. [GNPNEWS]

<성령님(2006), A.W.토저>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짐 윈터 <윌리엄 부스와 떠나는 여행>

단 한 명이라도 어둠에 있는 한, 나는 싸울 것이다



‘열정’이라는 한 단어를 묵상하던 어느 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고픈 마음에 서랄까? 구령의 열정과 기도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구세군(The Salvation Army)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에 관심이 쏠아졌다. 아쉽게도 그에 대한 책들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윌리엄 부스와 떠나는 여행’이라는 작은 책자를 구할 수 있었다. “여성들이 울고 있는 한 나는 싸

울 것이다.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는 한 나는 싸울 것이다.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한 나는 싸울 것이다. 술 취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남아 있는 한, 한 명의 가난한 소녀가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한, 어둠 속의 영혼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빛 없이 남아 있는 한 나는 싸울 것이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것이다!”

100여 년 전 연약하고, 병들고,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80세 노인, 윌리엄 부스가 한 이 말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140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1만 4000개의 구세군 부대가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가난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전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준다.

잃어버린 한 영혼, 죄로 인해 멸망당할 비참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쓸데없는 일에 1분도 낭비하지 말라던 그의 메시지처럼, ‘구원의 군대’로 목숨 걸고 원수와 싸웠던 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실제로도 치열한 삶의 현장인 도시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성 교회들의 시기와 핍박을 받기도 했다. 처음에는 썩은 야채와 달걀을 던지던 휘방꾼들이 나중에 돌을 던졌다. 구세군의 많은 사람이 구타를 당해 순교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열정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다.

부스는 오히려 “가능하다면, 나는 전도 훈련생들이 24시간 동안 지옥을 내려다보면서 그곳의 영원한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느껴보는 과정으로 그들의 모든 훈련을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열매가 보이지 않던 어느날 사역자들이 윌리엄 부스에게 편지를 보냈다.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써보았으나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부스는 “울어보십시오!(Cry!)”라는 짧은 답장을 보냈다. 그의 말에 따랐을 때 부흥이 일어났다. 부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눈물’을 가르쳤다.

이 시대의 죄에 대해 비통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외적으로 대단한 사역을 한다 해도 영혼 구원에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 돌아보게 된다. 나에게도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눈물이 마를 날 없는 두 눈’ 말이다. ‘주님, 어둠에 붙들렸던 죄인이 생명의 빛 안에서 자유를 얻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 울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절로 나온다.

부스는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다 두 눈을 실명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는 부스의 발걸음을 멈추지는 못했다. 실명한 아버지를 염려했던 구세군 동료였던 아들의 손을 꼭 쥐 채 부스가 말했다. “하나님은 최선의 길을 아신다.” 잠시 후에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나는 이 두 눈을 갖고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나는 두 눈이 없는 채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을 섬긴 시간이 흐른 만큼 어느덧 내 주변 여기 저기에서 아픈 이들이 생기고 또 그러한 소식이 들려온다. 나 또한 육체의 가시로 인해 이전보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제한받고 있는 형편이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부스를 통해 들리는 것 같다. 그렇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시력이 있고 없고가 장애가 될 수 있겠는가? No!

그는 이후에도 구세군 사역들을 살피며 유럽 전역을 순회했다.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갔지만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는 소천하던 해에 7000여 명의 구세군이 운집한 가운데 “나는 싸울 것이다!”라는 기념할 만한 설교를 전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공식 사역이었다.

주변을 기웃하며 남과 비교하여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나의 헌신을 가늠하고, 목숨 걸고 싸우지 않고, 적당히 기도하고, 대강 헌신하는 허울 좋은 그런 복음과 기도의 증인은 없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게 된다.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우리 모두가 실상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싸우는 구원의 군대요,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군사임에 틀림없다. 어린양 되신 주님만 따르리. The Salvation Army! 마라나타! [GNPNEWS]

양동원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주님, 어떤 것들이 더 좋으세요?”

예배시간에 네 살 예빈이가 다섯 살 시온이의 기차 장난감을 빼앗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며 싸우고 있었다.

“예빈아 그걸 가지고 놀려면 오빠한테 허락을 맡아야지. 일단 장난감 놔.”

예빈이는 손을 놓았지만 금방 울음을 터트렸다. 그리고 내 품에 안기려 했다. 나는 그 아이를 안아 주고 달래주었다.

“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었는데 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삼촌이 혼내서 마음이 상했구나.”

예빈이는 나에게 안겨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 울음을 그쳤다. 아직 볼에 눈물이 마르기도 전, 자기가 좋아하는 젤리를 먹기 시작했다. 난 아이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그러자 아이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어? 우리 엄마도 내가 울면 이렇게 닦아 주는데’ 하며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엄마같이 행동한 삼촌(선교공동체에서 남자 사역자를 부르는 호칭. 편집자주)이 친근해졌는지 자신이

먹던 젤리를 내 입에 하나씩 넣어 주었다. 마지막 두 개가 남았을 때 아이는 작은 손 위에 남은 젤리를 올려놓고 나에게 무슨 맛 젤리를 더 좋아하냐고 물어보았다. 삼촌이 먼저 먹으면 자기가 남은 것을 먹겠다는 말이였다. 네 살 먹은 아이의 그 배려가 참 기특했다.

아이들을 돌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면 즉시 마음이 상하고 성질을 부리는 인간 존재의 모습을 보았다. 다툼과 폭력을 무릅쓰고서라도 내 손에 원하는 것을 취하려는 탐심이였다. 잠잠히 인간의 탐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문화, 시대,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탐심의 노예였다. 나도 이 탐심을 십자가 앞에 깨뜨리고 영원하고 진정한 보배이신 주님께 안기느냐, 아니면 더 그 탐심을 굳게 하여 끝까지 돌진하느냐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다. 이 싸움은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일러스트=이수진

참여하는 공정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초대였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바로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들린 갈보리 언덕, 그 자리에서 탐욕을 부리는 나는 죽었고 거듭난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님께 사랑스럽게 안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나도 예빈이가 나에게 보여준 모습처럼 주님 품에 안겨 주님께 여

쭙고 싶다. “주님은 어떤 것들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내가 선택하기 전에 그 분이 먼저 선택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리며 탐심을 부리는 내 존재가 죽었음을 믿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을 따르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섭리가 감사함으로 다가왔다. [GNPNEWS]

양탕자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0. 1. 1 ~ 1. 16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고은영 권순호 김나리 김다경 김사회 김선희 김수미 김유남 노은옥 박경희 박명수 박상기 박성규 안민자 안병윤 안수경 유국주 은종숙 이경형 이영옥 이정숙 이준진 이진희 전정희 정진미 조형광 차상복 차인순 최근희 최정숙 황하임 무명

교회 및 단체 게르교회 문광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샘물교회 쉼은혜신일교회 주소만교회 하원교회 참종양대리교회 헬스미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GPM복음과기도미디어 전화 번호가 변경됐습니다.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새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0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